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4년 6월 2일	매 수	9매
	보도시기	배포시 부터	사 진	없음
	담당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 권기수 팀장 ☎ 02-3460-1081 ✉ kskwon@kiep.go.kr		
	배포부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보팀 ☎ 02-3460-1210		

월드컵 개최로 주목받고 있는 브라질 시장 진출 해법 제시를 위한 한·브라질비즈니스포럼 개최

- 오는 6월 3일 월드컵 개최로 주목받고 있는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한 해법 모색을 위해 ‘제3차 한·브라질비즈니스포럼’ 개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일형)은 2014년 6월 3일(화) 한·브라질소사이어티, 대한상공회의소, 외교부와 공동으로 브라질의 투자 환경을 점검하고 우리기업의 업종별 진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한·브라질비즈니스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서는 브라질의 대표적인 국책연구소인 응용경제연구원(IPEA), Quorum Brasil, 주한 브라질대사관, KOTRA, PWC Korea 등 국내외 최고의 브라질 전문가들과 브라질 시장에서 오랫동안 비즈니스 경험을 축적한 우리 중소기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급변하는 브라질의 투자환경을 진단하고 유망 진출 분야 및 진출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제1부에서는 최근 브라질의 정치·경제 리스크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급변하는 브라질의 투자환경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월드컵 및 대통령 선거이후 브라질의 정세 전망과 경제정책의 향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업종별·분야별로 특화된 브라질 진출 방안이 제시된다. 국내외 브

라질 관련 최고 컨설팅 기관의 전문가들이 중산층 확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정책에 힘입어 유망 진출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인프라, 소비재산업, 전자통신산업의 잠재력을 소개하고 이들 분야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풀어 놓을 예정이다.

제3부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브라질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제시된다. 국경 없는 과학 프로그램(Science without Borders)을 통한 브라질 인재 활용 방안, 수출인큐베이터를 활용한 중소기업 진출 방안 등 우리 중소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제시된다. 특히 부패방지법 도입 등 최근 브라질에서의 기업 법 변화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이에 대응한 우리 기업의 전략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브라질 전문가와 참여 기업인들과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 포럼 개최 직후 1:1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한다.

- 붙임 1. 주요 발표 내용 요약
- 2. 포럼 프로그램

[붙임 1]	주요 발표 내용 요약
--------	-------------

- 최근 브라질의 경제 리스크와 향후 경제전망

- 브라질 경제는 2011년 이후 성장 모멘텀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일시적인 회복 후 다시 하강하는 추세
- 향후 전반적인 경기회복 모멘텀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 감소 및 향후 재정적자 감축 등 정부의 경기부양 강도 둔화 위험
- 최근 브라질 경제의 성장 둔화는 크게 생산성 하락과 투자 부진에 기인
- 브라질 경제의 취약 요인인 경상수지 악화는 무역수지 축소, 서비스적자 확대에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나 대부분 외국인직접투자로 상쇄가 가능
- 경상수지적자와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브라질의 경기가 부진에서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
-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헤알화 가치는 월드컵 이후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남아 있음.

- 최근 브라질의 정치·사회 리스크와 대선 전망

- 금년 브라질의 3대 정치 리스크는 ① 지난해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정치·사회적 시위, ② 월드컵 변수, ③ 룰라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가능성임.
- 정치·사회적 시위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해 말(77%, '13년 11월)보다 크게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과반수 이상(57%, '14년 4월)이 시위를 찬성
-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월드컵을 반대하는 세력이 증가(08.11 10% → '14.2 38%)
- 현재 경제성장 악화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호세프 대통령을 대신해 룰라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등장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대두
- 현재 상황에서 볼 때, 호세프 대통령이 2차 결선 투표에서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의 아에시오(Aecio) 후보, 브라질사회당(PSB)의 캄포스(Campos)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현 호세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일부 경제정책의 수정이 예상되나 경제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

- 기로에 선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현황과 전망

- 지금까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발전은 크게 1단계(1985~2002년)와 2단계(2003~)로 구분
- 2단계에서는 내적으로 관세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남미 범지역통합체인 남미국가연합(Unasur) 설립을 통해 외연적 확장을 도모
- 특히 이 시기에는 파라과이 등 역내 약소국의 불만 해소를 위해 ‘남미공동시장 구조수렴기금(Focem)’이 설립
- 현재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남미 물류통합을 목표로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 브라질 인프라사업 진출 기회와 전망

- 브라질 정부는 2007년부터 3년 단위로 인프라 개발을 위해 성장촉진계획(PAC)을 추진. 2014년 종료되는 2차 성장촉진계획(2011-2014)의 경우 2013년까지 총 투자계획의 76%인 3,500억 달러가 투자
- 2014년 8월에 제3차 성장촉진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바, 주요 투자 분야는 발전소 및 송전, 고속도로 및 철도, 도시교통, 항만 및 공항, 상하수도, 공공주택 등
- 특히 브라질 정부는 2012년부터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2,500억 달러 규모의 물류 투자프로그램(PIL)을 추진. 주요 투자 분야는 고속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 등

- 브라질 중산층의 부상과 소비시장 변화

- 브라질은 남동부, 남부, 북동부, 북부, 중서부 등 다섯 개 권역으로 뚜렷한 경제적 특징을 갖고 있음. GDP 규모는 남동부가 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부(16%), 북동부(13%), 중서부(10%), 북부(5%) 순
- 소비구매력은 GDP 규모가 작은 북동부(20%)와 북부(6%)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남동부지역의 소비구매력(49%)은 GDP 규모에 비해 작은 편
- 최근 브라질 경제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는 비교적 높은 증가세 유지. 최근 소매판매 증가는 신용대출 확대, 가계소득 증대 등에 기인
- 사회계층별로 소비규모는 중산층(C계층, 전체 가계의 48%)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그 다음으로 중상류층(B계층)이 23%, 하류층(D계층)이 22%, 상류층(A계층)이 3% 비중 차지
- 연령별로는 30세 이하 인구가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인구는 11% 차지

- 치안이 불안한 브라질의 상황에서 쇼핑 물은 대체로 안전한 쇼핑 장소로 인식
- 상류층을 제외하고 브랜드보다는 제품의 가격이 구매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조사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거리 상가보다는 쇼핑몰을 선호하며, 어린이가 구매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신상 브랜드에 대한 구매 의사가 높은 것으로 조사

- 브라질 유망분야 진출 방안

- ① 건설경기 활성화로 고급 인테리어(벽지, 바닥재) 제품 등 건축자재, ② 통신 현대화 사업으로 인터넷 중계기, 광케이블, ③ 전력 부족으로 LED, 스마트그리드, ④ 암염하층 유전 개발로 선박/offshore 기자재, ⑤ 자동차 시장 성장으로 자동차 부품 등이 유망
-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한 3대 키워드는 ① 철저한 시장조사, ②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적극 활용, ③ 단독투자보다는 브라질 현지기업 및 교포업체와의 합작 진출 등임.

- 국경 없는 과학프로그램(Science without Borders)과 인재활용 방안

- 브라질은 10만 명의 이공계 인력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브라질 학생들의 유학을 지원하는 국경없는 과학프로그램(SwB)을 실시해오고 있음.
- 이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총 325명의 브라질 학생(이중 181명은 현재 한국 체류 중)이 한국에 유학을 옴. 2015년까지 대한민국 유학생은 총 551명에 달할 전망
- 국별로 브라질 학생의 한국 유학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입. 중국은 189명, 일본은 81명에 불과
- 현재 브라질 유학생의 90%가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인턴십 과정을 거침. 다른 국가에서 브라질 유학생이 인턴십을 하는 경우는 평균적으로 27%에 불과함.
- 한국 중소기업들의 경우 브라질 유학생의 인턴 고용을 통해 브라질 시장 진출 시 △언어 문제 해소 △ 현지 네트워크 구축 △ 현지 잠재고객 발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수출인큐베이터를 활용한 중소기업 진출 방안

-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브라질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상파울루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립 운영
- 주요 입주 기업은 브라질 진출 희망 중소기업,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 주요 지원 서비스는 저렴한 사무공간 제공, 부대시설 이용, 현지정착 지원, 마케팅 지원, 전시공간 제공 등임.
 - 입주 기간은 통상 1년이며 입주 부담금은 보증금 300만원, 월 임차료 220불임.
 - 입주 희망 기업은 중진공 수출마케팅 사업처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타당성 평가, 현지 시장성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입주 기업으로 선정
 - 입주 기업의 장점으로서는 브라질의 높은 물가수준을 감안 시 저렴한 사무공간 활용 가능, 조기 정착 지원 및 정보 제공을 통해 해외진출 초기 위험부담 경감, 정부기관 입주를 통한 신뢰도 제고, 제반 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한 효과적 시장 공략 가능 등을 들 수 있음.

- 브라질의 부패방지법 도입과 대응 방안

- 브라질은 2013년 8월 소위 클린기업법(Clean Companies Act)이라 불리는 부패방지법을 공포
- 부패방지법의 도입 목적은 국내외 공직자를 매수하는 법인을 처벌하겠다는 것임. 지금까지는 법인이 국내외 공직자를 매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해도 이를 처벌할 법이 존재하지 않았음.
- 반부패법은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을 폭넓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러한 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 현지 진출 우기기업들은 할 수 있는 행위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분해 이를 반복적으로 직원 및 법에서 정한 관련 기업이나 관련자들에게 인식시키고 교육해야 함. 더 나아가 정기적으로 감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 결과적으로 매수나 부정부패 등의 방법이 아닌 적절한 방법으로 기업의 이윤을 늘려나가는 기업문화 정착이 필요

- 브라질 법인 설립 진출 전략

- 브라질에서 사업타당성을 분석할 경우 간접세의 tax credit(매출세액-매입세액)이 실무적으로 현금 환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간접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은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유한회사(LTDA)를 선호. 지점형태의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본사 재무제표 등 본사 관련 정보 공시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점 형태의 진출은 매우 드뭄.
- 브라질에서 기준금리는 한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음. 본사에서 직접 차입하는 경우 이전가격세제 및 과소자

본세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브라질의 인건비 수준은 다른 남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노동법이 매우 강해 노무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

[붙임 2]	포럼 프로그램
---------------	----------------

- 일 시 : 2014년 6월 3일(화), 10:00-18:00 (등록: 09:30-10: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
- 주 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대한상공회의소
- 후 원 : 외교부, 주한브라질대사관, 조선비즈
- 진행언어 : 한-영 동시통역 제공
- 프로그램

09:30~10:00	등 록
10:00~10:30	개회식 개회사: 정형곤 부원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축 사: 장명수 국장(외교부) 최신헌 회장(한·브라질소사이어티)
10:30~12:00	<u>제1부 브라질의 투자환경 변화와 전망</u> 사회: 윤현덕 교수(승실대) 발표1: 최근 브라질의 경제 리스크와 향후 경제전망 발표자 : 신환중(우리투자증권) 발표2: 최근 브라질의 정치·사회 리스크와 대선 전망 발표자 : Helder do Vale(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발표3: 기로에 선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현황과 전망 발표자: Walter Desidera(IPEA, 브라질응용경제연구원) Q & A
12:00~13:30	오 찬
13:30~15:00	<u>제2부 업종별 진출 방안</u> 사회: 권기수 팀장(KIEP)

	<p>발표1: 인프라산업 진출 방안: 브라질 인프라 투자환경과 제3차 성장촉진계획(PAC-3) <i>발표자 : Felipe Pinto(주한 브라질대사관)</i></p> <p>발표2: 브라질 중산층의 부상과 소비시장 진출 방안 <i>발표자 : Leonardo Vils(Quorum Brasil Consulting)</i></p> <p>발표3: 브라질 유망산업 진출 방안 <i>발표자 : 정택근(KCB Consulting)</i></p> <p>발표4: 전자통신산업 진출 방안 <i>발표자 : 김종일(Luxicom)</i></p>
15:00~15:20	Coffee Break
15:20~16:50	<p style="text-align: center;"><u>제3부 신협력분야 진출 방안</u></p> <p>사회: 편무원 부회장(KOBRAS)</p> <p>발표1: '국경 없는 과학프로그램'과 인재활용 방안 <i>발표자 : Carlos Gorito(주한브라질대사관)</i></p> <p>발표2: 수출인큐베이터를 활용한 중소기업 진출 방안 <i>발표자 : 황기상(KOTRA)</i></p> <p>발표3: 브라질의 부패방지법 도입과 우리의 대응방안 <i>발표자 : 조희문(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i></p> <p>발표4: 브라질 법인 설립 전략 <i>발표자 : 정일용(삼일회계법인)</i></p> <p>Q & A</p>
16:50~18:00	<p style="text-align: center;"><u>제4부 1:1 비즈니스 미팅 및 네트워킹</u></p> <p>- 1:1 비즈니스 미팅: 사전 신청자 대상 - 네트워킹: 포럼 발표자 및 참석자</p>